

# <朝鮮王朝實錄>에 나타난 朝鮮中期帝王들의 疾病과 死因研究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尹漢龍·尹暢烈

## Research on diseases and causes of death of kings during middle Chosun Dynasty based on The Authentic Record of Chosun Dynasty

Yoon Han-ryong · Yoon Chang-ryeol

This paper is the result of the study of diseases, treatments, and causes of death of Yunsan-Gun, King Jungjong, King Injong, and etc that are recorded in The Authentic Record of Chosun Dynasty. Yunsan-Gun died at the age of 31, two months after he was expelled to Kanghwa Island. His rage, regret and emotional disorder injured Wonki therefore, exopathogens easily affected and finally caused death. King Jungjong died of old age. King Injong was born with weak heart and stomach, and attack of sorrow among seven emotions, and failure of harmonious intake of food lead to death.

---

### 1. 緒論

悠久한 歷史를 가진 우리의 傳統醫學인 韓醫學은 이름만 東醫 漢醫 韓醫 등으로 時代에 따라 다르게 불리어져왔을 뿐 우리 民族의 純粹自然發生醫學에 三國時代쯤 中國과 印度醫學이 流入되고 高麗時代 이후에는 積極的으로 中國의 醫學을 輸入하게 되었으며 그 후 朝鮮時代에는 이를 鄉藥化하는 등 自立的인 醫學으로 發展시키고자 勞力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여겨진다.

醫史學은 醫學과 醫療技術 發展의 자취 그리고 醫學發展을 둘러싼 社會的 精神的

環境과의 각 時代 相互關係을 밝히는 學文이다<sup>1)</sup>. 따라서 韓國醫學의 研究는 우리 醫學의 淵源을 遡及 追究하고 醫學理論과 醫療技術의 變遷科程을 究明하며, 이러한 醫學發展이 그 밖의 政治, 經濟, 社會, 文化, 思想과 어떠한 關係을 가지고 影響을 주고 받았는지 살펴보는 데 있다.<sup>2)</sup> 歷史研究가 그러하듯 옛사람들의 발자취를 研究하는 것은 옛날 그 사건을 있는 그대로 事實으로 그리는 것도 重要하지만 역사를 解釋하는 當代의 視覺에 따라 다르게 再解釋할 수 있듯이 韓醫學史도 오늘날의 韓醫學과 過去醫學이 어떤 因果關係가 있으며 그것을 통해 現在의 韓醫學이 어떻게 形成되었음을 糾明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未來에 더욱 發展된 韓醫學을 創造하는 礎石을 놓는 作業을 한다는 것에 韓醫學史研究의 참된 意義가 있다할 것이다.

著者は 평소 歷代 王朝의 宮中醫學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시대의 最高級의 醫學일 가능성이 많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굳이 朝鮮王朝의 宮中醫學부터 整理해보고자 한 것은 純全히 記錄文獻의 有無때문이었다. 물론 三國, 高麗時代의 王室醫學도 관심의 대상이 되겠지만 三國時代의 王室文獻 부족과 高麗王朝 實錄의 遺失로 보다 仔細하고 正確한 書史的資料가 없어서 아직은 쉽게 研究할 수 없는 限界에 부딪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선 온전하게 남아있는 <朝鮮王朝實錄>을 그 텍스트로 하여 朝鮮時代의 王室醫學부터 始作하기로 했다. 또한 여기서는 王室 중에서 便宜上 中殿이나 大君 등의 王族들은 제외한 歷代帝王들의 疾病과 死因 및 그 治療方法의 研究로 制限하기로 하였다. 이 작업은 韓醫師 중에서 누군가 해야한다는 使命感으로 文獻收集에 들어가 보니 이미 조선시대 前期君王의 疾病에 대한 研究結果<sup>3)</sup>가 나와 있으므로 우선 여기서는 “<朝鮮王朝實錄>에 記錄된 朝鮮中期 帝王들의 疾病과 그 死因에 대한 研究”에 局限하며 1차적으로 燕山君, 中宗, 仁宗의 疾病과 治療를 發表하기로 한다. 이 作業이 하나의 작은 行步에 불과하지만 이 작은 한 걸음이 앞으로 朝鮮의 帝王들과 中殿 惑은 後宮 그리고 大君들을 總括하는 名實相符한 宮中醫學의 完成을 爲한 첫걸음이 되리라 본다.

<朝鮮王朝實錄>은 朝鮮時代 政治, 外交, 經濟, 社會, 産業, 軍事 기타 모든 文化를 總網羅하여 收錄하고 있어 朝鮮時代 一般歷史의 研究뿐만 아니라 醫學史<sup>4)</sup>의 基礎研究 資料로도 매우 貴重한 우리의 文化遺産이다.

우리나라에서는 高麗時代부터 實錄을 編纂했었지만 高麗王朝의 實錄은 遺失되어 오

1) 金斗鍾, <東西醫學史大綱>, 서울, 探求堂, 1979, p. 3.

2) 金勳, 조선전기 군왕의 질병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3) 上揭書를 일컬음.

4) 上揭書를 일컬음.

늘에 傳하지 않고 있다.

高麗時代부터 編纂한 <實錄>들은 在位하던 임금의 昇遐할 때마다 반드시 常設機關인 春秋館과 監視機關인 實錄廳을 두어 先王의 實錄을 編纂하여 特別히 史庫를 만들어 奉安했다. 그리고 이<朝鮮王朝實錄>은 太祖부터 哲宗에 이르기까지 25대 472年間의 實錄이 오늘날까지 고스란히 남아있다. 그래서 오늘날 世界文化遺産에 지정될 정도로 값진 遺産을 우리民族은 가지게 된 것이다. 그런데 朝鮮時代는 27대 518年間 存續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일까. 물론 26대와 27대 王인 高宗, 純宗 實錄도 따로 있다. 그러나 이것은 日帝下의 朝鮮總督府에서 編纂했기에 史學界에서는 既存實錄보다 實錄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區別하고 있어 일반적으로<朝鮮王朝實錄>이라고 하면 이 두 王의 實錄을 제외한 <實錄>을 일컫는다.

## 2. 本 論

2-1-가. 燕山君에 對한 小考.

<朝鮮王朝實錄> “燕山君日記”의 叢書에는 燕山君에 대해 아래와 같이 記錄하고 있다.

燕山君 諱隆.成宗康靖大王長子.母廢妃尹氏.判奉常寺事 起畎之女 .以成化丙申十一月初七日 丁未生. 癸卯二月己巳 冊封世子. 遣領中樞 韓明澮等. 請 命于京師 .五月丁酉. 帝遣太監鄭同等. 賜 勅封. 少時不好學. 東宮僚屬. 有勸戒者. 深御之. 及卽位. 宮中所行. 多不善. 外庭猶未之知. 晚年 荒悖淫縱. 大肆虐政. 誅殺大臣. 臺諫侍從殆盡. 至有炮烙. 斲胸寸斬碎骨飄風之刑. 遂廢從喬桐. 封燕山君. 居數月. 以疾終. 年三十一. 在位十二年.<sup>5)</sup>

燕山君은 어릴 때부터 學文을 싫어했으며 임금이 된 後에도 荒悖淫縱하여 여러 大臣들을 誅殺炮烙斲胸하는 등 虐政을 實施하다가 喬桐으로 廢黜되었다가 두어 달만에 疾病으로 죽었다고 되어있다. 好意的인 單語라고는 눈을 찧고 봐도 찾아볼 수 없다. 쫓겨난 帝王의 位相이리라.

燕山君은 1476년 成宗의 元子로 숙의 尹氏의 몸에서 태어나서 같은 해 尹氏가 中殿의 자리에 오르자 燕山君에 冊封되었으며 1483년 8歲의 나이로 世子로 冊封되었고

5)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券12, 서울, 探求堂, 1986, P. 623.

19歲 되던 成宗 25年 西紀 1494年 12月 24日에 成宗이 昇遐하자 朝鮮 제 10代 王으로 登極하였다. 아직 20歲가 되지 않아 人壽대비의 攝政을 받아야 했으나 새해가 며칠 남지 않아 곧바로 親政에 들어갈 수 있었다. 燕山君은 1498年 戊午史禍가 일어나기 前의 4年 동안은 成宗末期에 나타난 頽廢風潮와 腐敗象을 一掃하는 등 改革의 時期였다. 全國各地에 暗行御史를 派遣하여 民間動靜과 官僚의 紀綱을 바로잡았으며 別試文科를 實施하여 33人의 人材를 급제시켰고 邊方의 女眞族을 回遊케하는 등 國防外交에도 힘썼으며 文臣의 私家讀書를 다시 實施해 朝廷學文의 風土를 새롭게 했으며 世祖이래 3조의 “國朝寶鑑”을 편찬해 後代 王들의 帝王修業에 龜鑑이 되도록 하기도 했다.

그러나 戊午史禍와 그 뒤 일으킨 1504年の 甲子土禍 等 두 土禍를 그치면서 士林과 勳舊 등 政敵을 除去하고 王權을 強化하는데는 成功했지만 오히려 牽制勢力이 없어지자 스스로 內面의 狂暴한 性格을 自制하지 못하고 마음껏 發揮하여 大殺生劇과 文化抹殺을 自行하는 등 狂的인 暴政을 일삼아 朝鮮帝國 稀代의 暴君으로 轉落하고 만다. 結局 이런 暴政에 輿論主導層의 支持를 잃고 끝내 성희안 박원종 등이 일으킨 中宗反正으로 1506年 9월 燕山君으로 降等되어 江華道에 流配되었다가 疫疾에 걸려 두 달 뒤인 11월에 31歲의 짧은 나이로 눈을 감았다. 19歲의 나이로 帝王의 位에 오른지 11年 9個月째였다.

그런데 逆說의 이케도 채홍사를 두어 많은 女子를 불러들였고 亂雜하고 悖倫的인 정도로 性에 탐닉했었다는 그가 廢妃 申氏에게서 2男 1女, 失名의 後宮 한 名에게서 2男 1女 等 總 4男 2女의 子息을 두었다고 傳해져 疑訝해 진다. 그것은 그의 父親 成宗이 婦人 12名에게서 16男 12女를 그의 동생 中宗이 10名의 婦人에게서 9男 11女를 둔 것과 比較해 보면 더욱 그렇다. 6남매를 둔 것으로 봐서 生殖能力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가 상대한 그 많은 女子들이 不妊女였는지, 아니면 史官들이 生産記錄을 漏落시킨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이미 지나친 房事로 나이 30에 精液이 枯渴될 정도로 亂雜하였다는 이야기들이 虛構인지 疑訝스럽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燕山君日記>는 反正의 主導勢力이 記錄한 勝利者의 記錄이고 그래서 燕山君의 惡行만을 強調한 感이 없지 않고 史草가 없는 狀態에서 만들어진 것이기에 實錄으로서의 質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事實이다. 時刻에 따라서는 燕山君의 그런 行爲를 예종 成宗을 거치면서 勳舊大臣이나 言官들의 권한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약화된 王權의 強化를 위한 自救策<sup>6)</sup>으로 보거나 母情 없이 자란 人間的인 苦痛과 그 特有的인 浪漫的 性格으로 理解할 수도 있다.

6) 송수환, 갑자사화의 새해석, 사학연구57호, 1999.

어쨌든 燕山君은 稀代の 暴君으로 歷史에 남았지만 朝鮮帝國時代 完全한 王權을 누리며 專制君主로 君臨한 마지막 帝王이라는 事實만은 모든 史學者들이 認定하고 있는 것 같다. 그 以後로 그 어느 王도 臣下와 萬 百姓위에 나 홀로 堂堂히 서서 無所不爲의 칼을 휘두른 王은 없었기에. 오히려 王들이 臣下の 눈치를 봐야했고 黨派싸움의 소용돌이 속에서 王 自身도 헤어나지 못했다. 저 朝鮮王朝의 르네상스요 實學의 時代를 열었다는 英,正祖時代조차도 그러했다. 그것은 燕山君이 王族이 아닌 臣下에게 廢黜당한 朝鮮 最初の 君王이었기 때문에<sup>7)</sup> 그 以後 王권은 急激하게 萎縮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王 自身도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다는 생각에 臣下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으며, 힘 있는 臣下들도 언제든지 自身들의 趣向대로 王을 바꾸는 것이 可能하다는 認識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意味에서 燕山君의 廢黜은 朝鮮王朝史의 政治形態에 있어서 큰 意味가 있다 하겠다.<sup>8)</sup>

2-1-나.<燕山君日記> 中에 기록된 燕山君의 疾病과 死因.

<朝鮮王朝實錄>에는 燕山君의 疾病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記錄이 보이지 않는다. 燕山君은 나름대로 健康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學文을 싫어하고 사냥을 좋아했다면 豪宕하고 女色을 탐한 것으로 보아 그는 文弱한 君王이라기보다 武人의 氣質이 강한 君王임을 짐작할 수 있다. 氣質이 그랬기에 獨裁와 暴政이 可能했으며 또한 良好한 健康이 그것을 뒷받침 했을 것이다. 문종 또는 인종의 性品이나 體力으로 燕山君의 政治形態를 想像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봐서 그의 性格과 身體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朝鮮王朝實錄>에는 연산군의 고질병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저 日常的인 간단한 症勢들만이 簡略하게 記錄되어 있을 뿐이다. 頻尿症, 面瘡, 胸膈痛, 感氣, 眼疾, 舌痛, 頭痛, 搔痒症, 泄瀉, 疫疾 등이 보일 뿐이다.

맨처음 記錄은 燕山君 1년 1月 8日에 나와있다. 燕山君의 ‘小便이 잦으므로(頻尿症) 縮泉元을 드리라고 記錄되어 있다. 그 原因은 오래 廬次에 계시고 朝夕으로 哭位에 나가시므로 추위에 傷하여 그렇게 된 것이라 하고 萬若 下裳 邪幅과 버선에다 毛皮를 붙여서 下部를 따뜻하게 하면 이 症勢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며 그렇게 하지

7) 태종의 등극이나 세조의 왕위찬탈은 왕실내의 문제여서 오히려 왕권이 강화되었다. 조선 3대 폐권왕을 든다면 위 두 왕에 연산군을 더할 수 있을 것이다.

8) 연산군의 폐출이후 왕권보다 신권이 강화되어 뒤에 폭군이 아니었는데도 구태타가 일어나 광해군이 폐출되는 사건이나 선조이후 등장한 당파들도 신하들을 일방적으로 아우르지 못하는 왕권의 약화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데 이것들에 연산군의 폐출사건이 일정한 영향을 주었으리라고 사료된다.(선조부터는 적통이 끊어지고 방계인 서자들이 왕통을 잇다보니 더욱 왕권이 약화되었을 것임)

않고 藥을 內服하시면 脾胃를 傷할 念慮가 있다고 하고 있다. 이에 연사군이 傳敎하기를, “醫員의 말이 ‘쑥으로 뜨라(艾灸).’ 하므로 내가 方今 試驗하는 中이며, 잠방이 속에 山羊皮를 붙이라 하였더니, 小便 자주 나오는 症勢가 前日보다 조금 덜하다9).” 하고 있다. 동년 1월 20일의 기록에는 “王이 前부터 面瘡이 나서 醫官으로 하여금 中國에 가서 藥을 구하여 오게 하였더니, 雄黃解毒散과 善應膏를 얻어 왔다. 마침 私婢 萬德이 또한 이 瘡가 있었으므로, 醫員 宋欽을 시켜 먼저 試驗하게 하였더니, 자못 效驗이 있을 때, 불러서 물으니, 萬德이 말하기를 ‘지난해 4월에 面瘡가 나서 針을 맞은 뒤에 桑灰水로 씻고 또 寒水石 가루와 梧桐淚 가루와 雄黃 가루를 발랐으나 效驗이 없더니, 이 달 11일에 雄黃 解毒散을 溫水에 타서 씻고 또 善應膏를 붙이니 고름이 많이 나오고 조금 가려워서 긁고 싶더니 서너 번 갈아 붙이자 날로 나아가서, 두 개의 작은 구멍이 쌀알 만하게 남고 結核이 개암 열매(榛子)의 크기만 합니다.”라고 記錄되어 있다10). 동년 2월 5일에는 燕山君이 胸膈痛이 그치지 아니하였다고 쓰고 있는데 그 原因을 날마다 다섯 차례나 哭臨하시어 추위에 感觸된 所致라고 承政院이 아뢰자 燕山君은 스스로 喪心에서 始作된 것이라고 하자 臣下들이 哀痛함이 禮에 지나치니 이는 大孝가 아니라고 말하며 哭臨도 朝夕奠으로 줄이라고 아뢰고 있다11). 위의 頻尿症, 面瘡, 胸膈痛은 부친 成宗의 葬禮奠 哭臨과 關係된 것으로 그는 이미 이때부터 추위와 哀痛을 憑藉해 上記 症狀들을 調理해야 한다며 朝奠 夕奠 등에 빠지기 始作한다. 이들 症狀는 큰 病이라기보다 사소한 症狀들인데도 燕山君이 게으름을 피우기 위한 方便으로 活用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그러나 이때까지는 臣下들이 그것을 나무라지 않고 調理하기를 勸하는 것으로 보아 그렇게 무리한 行動은 아니었던 것 같다. 이 같은 燕山君의 行態는 그의 조카인 仁宗의 行爲와 너무나 달라 比較가 되는데 이는 두 사람의 性情의 差異12)이겠지만, 어머니를 죽인 할머니와 아버지에게 대한 怨恨이 19세의 한 青年의 가슴속에 깊이 박혀있어 孝心이 우려나올 수가 없었으리라고 보는 것도 한 理由일 수가 있겠다.

燕山君 2년 그의 나이 21歲가 되는 해 11월 8日과 11월 22일에 感氣 기침으로 하

9)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券12, 서울, 探求堂, 1986, P.631

10) 上揭書, P. 637.

11) 上揭書, P. 646.

12) 연산군과 인종은 매우 대조적으로 보이지만 性情외에는 비슷한 면이 많아 자못 흥미롭다. 우선 원자로 일찍 세자가 되었고, 모친 얼굴도 모를 정도로 조실모하여 계모왕비손에서 자란것과 다음 왕위가 계모의 아우에게 이어졌고 어머니가 모두 과평윤씨였으며 31세에 사망한 것까지. 그래서 사춘기의 갈등도 비슷할 것 같은데 효성에서는 천양지차가 나니 환경도 어질 수 없는 타고나는 性情이 있는 모양이다.

루 세 번 나가는 經筵에 나가지 못함을 전하면서 일부 신하들이 朝廷에서는 經筵講書를 廢止하고 經筵을 停止한다고 하여 나를 게으르다고 나무라지만 나는 원래 弱質이라 심한 感氣로 여러 날 못나갔으나 만약 差度가 있으면 經筵에 나가겠다고 하고 있다. 그러자 도승지 姜龜孫이 ‘상이 미령함을 어찌 지척에 있으면서 모르겠습니까13).’ 라며 연산군의 뜻을 받드는 것으로 봐서 이미 經筵을 廢止하고 停止한지가 오래이며 그것에 대한 是非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도 신하들도 한결같이 반대하지는 않고 있다. 동년 11월 23日에는 몸이 아파 經筵에 못나가는 詩를 내리기도 한다14).

燕山君 3년 그의 나이 22歲되 는 해 2月 30日에는 眼疾로15), 同年 3월 4일에도 眼疾로 책을 읽지 못한다는 理由로16), 同年 10월 13일에는 舌痛으로 글을 읽을 수 없다는 理由를 들어17), 10月 22日에는 눈섭위의 赤暈으로 가려워서18), 4年 燕山君 나이 23歲 되는 해 5月 28日에는 더위 때문에19), 同年 12월 24일에는 頭痛으로20) 臣下들이 請하는 經筵을 拒否하고 있으며, 燕山君 6년 그의 나이 25세 되는 해 4월 12일에는 疲勞를 理由로 兵曹의 習陣觀兵을 停止시키고 있다21). 燕山君 7년 그의 나이 26세되는 해 1월 21일자에는 口內傷破症으로 나가고 싶어도 經筵에 못나간다고 記錄하고 있고22), 燕山君 9년 나이 28세 되는 해 1월 24일에는 右目痛과 눈동자가 약간 부은 것 같아 晝講과 夕講에 나가지 못하니 알맞은 藥을 調製하여 進上하라고 記錄하고 있고23), 燕山君 10년 나이 29세 되는 해 3월 14일 搔痒症과 泄瀉로 藥을 먹고 있으므로 못나간다고 記錄하고 있다24).

위의 기록이 <燕山君日記> 중에 기록된 疾病들이다. 모두가 하나같이 經筵에 나오려면 못나가는 理由로 醫員이 아닌 患者 자신이 직접 이야기한 疾病들이다. 文獻만 봐

13) 上揭書, P. 162.

14) “咳深煩多困氣綿 耿終夜未能眠 諫官不念宗社重 每上疏章勸經筵” 上揭書, P. 164.

15) 上揭書, P. 198.

16) 上揭書, P. 199.

17) 上揭書, P. 287.

18) 上揭書, P. 290.

19) 上揭書, P. 312.

20) 上揭書, P. 338.

21) 上揭書, P.410.

22) 上揭書, P. 438.

23) 上揭書, P. 540.

24) 上揭書, P. 596.

서는 피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果然 燕山君이 쫓겨난 廢主가 아니었다면 과연 이렇게 記錄할 수 있었을까. 現在의 일반 國民들의 立場에서 보아도 工夫하기 싫은 初等學生의 辨明에 불과한 이런 피병타령을 一國의 장년의 君主가 한두 번도 아니고 10年間이나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은 다소 誇張된 면이 없지 않나 여겨진다. 아마 이것은 <燕山君日記>가 연산<實錄>이 아니고 <日記>로 남아 있어 史料의 信賴性을 떨어뜨

리고 있다는 주장<sup>25)</sup>과 有關하며 이 日記는 다분히 燕山君時代를 事實보다 貶下 卑下해서 中宗反正을 正當化했을 蓋然性이 많음을 보여주는 한 例가 아닐까 하는 것 정도로 提起하고 여기서는 그냥 지나치기로 한다.

燕山君 12년 그의 나이 31세 되는 해 8월 23일 이날은 燕山君이 廢黜되기 한 열흘도 채 되기 전 쫓겨나는 날이다. 이미 燕山君은 자신의 末路를 豫見이라도 한 듯한 記錄이 다음과 같이 남아 있다.

“내거동이 있었는데 王이 後庭 나인을 거느리고 後苑에서 宴會를 베풀며 스스로 草 屨 두어 曲調를 불고, 歎息하기를, 人生如草露, 會不多時하며, 읊기를 마치자 두어 줄 눈물을 흘렸는데, 여러 계집들은 몰래 서로 비웃었고 惟獨 田非와 張綠水 두 계집은 슬피 흐느끼며 눈물을 머금으니, 王이 그들의 등을 어루만지며 이르길, ‘只今 太平한 지 오래이니 어찌 不意에 變이 있겠느냐마는, 萬若 變故가 있게되면 너희들은 반드시 免하지 못하리라.’하며, 각각 物件을 下賜하였다 26).“

燕山君 12年(中宗 元年 西曆1506年) 그의 나이 31歲 되는 해 11월 7일 ‘燕山君이 疫疾로 몹시 괴로워하여 물도 마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눈도 뜨지 못한다고 아뢰니, 中宗이 救病할 만한 藥을 內醫院에 물어라고 傳敎하고 있다<sup>27)</sup>. 그러나 同年 11월 8일에 喬桐 守直將 金良弼 軍官 구세장이 와서 初 6日에 燕山君이 疫疾로 因하여 이미 죽었으며 죽을 때 다른 말은 없었고 다만 廢妃 申氏를 보고 싶다고 하였고 아뢰고 있다. 이에 中宗이 哀悼하고 中사 박종생을 보내 壽衣를 내리고 그대로 머물러 葬禮를 監督하도록 하고 燕山君을 厚한 禮로 葬事지내라고 傳敎하고 있다<sup>28)</sup>.

朝鮮時代 反正으로 쫓겨난 임금으로 魯山君, 燕山君, 光海君이 있다. 肅宗때 端宗

25) 박영규, 한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 서울, 들녘, 1996, PP. 171~173.

26)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券14, 서울, 探求堂, 1986, P. 66.

27) 上揭書, P. 94.

28) 上揭書, P. 95.



으로 復位된 魯山君은 17세의 어린 나이로 賜死되었고 光海君은 世子와 世子嬪이 廢位 2개월여만에 自殺했고 廢妃 유씨도 流配生活 1년 7個月만에 鬱火病으로 死亡했지만, 정작 그는 강화도 태안 교동 濟州道 등지로 떠돌면서도 超然한 삶의 姿勢로 18년이나 더 살다가 67세의 나이에 그 多難한 生을 마감한다. 그들에 비해 燕山君이 이렇게 廢位 2個月여만에 疫疾에 걸려 死亡하고 마는데 그 직접적인 死因이야 疫疾이라고 하겠지만 그 先行死因은 脫營과 失精으로 免疫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즉, “素問 ‘疏五過論’ ”에서 말하는 貴한 身分에 있던 자가 갑자기 그 地位를 잃게 되어서 오는 精神的인 衝激과 葛藤 등이 源因이 되어 오는 症狀을 脫營이라 하며, 財力이 豊富하던 사람이 財産을 蕩盡해서 줄지에 損財를 당해 가난해지면 失望과 悔恨 등의 精神的 葛藤이 원인이 되어 오는 증상을 失精이라 하는데 이와 같은 症狀들은 비록 外邪에 損傷되지 않았는데도 精神的인 葛藤으로 몸안에서 생기는 病이다<sup>29)</sup>.) 즉, 精神的인 抑鬱과 悲嘆 悔恨 憤怒 自愧感 鬱火 等等이 뒤섞여 안의 營血과 밖의 衛氣가 耗損되어 氣血虛損과 精力減退의 結果로 疫疾이 왔을 것이다. 그리고 <燕山君日記>의 文字적 解釋 밖으로 推論해 본다면 廢黜된 燕山君은 실사 疫疾이 들지 않았더라도 매사의 意慾喪失과 疲勞 倦怠感으로 食慾을 잃고 瘦瘠해져 결국엔 死亡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魯山君처럼 그 또한 賜死당했을 蓋然性도 排除 하지 못했을 것이다.

## 2-2-가 中宗에 대한 小考.

<中宗實錄> 叢書에는 아래와 같이 中宗에 대해서 記錄하고 있다.

王諱懌. 字樂天. 成宗大王第二子. 母妃貞顯王后尹氏. 燕山昏虐 宗社將危 衆議推戴. 性仁孝. 勤儉. 善於聽斷. 謹社恤民. 恭以接下. 優納諫諍. 誠心事大. 終始不替. 不崇信異端. 不好游畋聲色. 玩戲奢靡之事. 亦不留心. 中年好學 樂善. 銳意古治而. 專任新進. 事多過激. 志未克就. 厥後雖屢爲姦人所誤. 能復開悟. 頗有學力也. 在位三十九年. 壽五十七.  
30)

29) 嘗貴後賤名曰脫營 嘗富後貧名曰失精 雖不中邪 病從內生(素問‘疏五過論’) 嘗貴後賤 嘗富後貧 則傷其志意 故雖不中邪 而病從內生 夫脾藏營 營舍意 腎藏精 精舍志 是以志意失而精營脫也(素問 ‘疏五過論’) 金相孝, 東醫神經精神科學, 서울, 杏林出版, 1980, p152~153

30) 上揭書, 卷14, P. 71.

위 實錄의 叢書를 읽어보면 中宗은 性品이 어질고 孝誠스러우며 부지런하고 儉素하며 聽斷을 잘하였고 祝祭를 삼가며 百姓을 불쌍히 여겼고, 恭遜하게 아랫사람을 대하고 너그럽게 諫諍을 容納 하였으며 誠心으로 中國을 섬겨 始終 變함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 글에서 그 時代의 史官의 歷史意識이 어떠한지를 엿볼 수 있다. 徹底하게 親明 事大主義思想에 빠져 있는 것이다. 그리고 中宗에 대해서 아주 好意的으로 記錄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다른 史論도 中宗이 死亡한 날에 記錄되어 있어 多樣的 言路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上. 仁柔有餘. 而剛斷不足. 雖有有爲之志. 而無有爲之實. 好惡不明. 賢邪混進. 故四十年間. 治小亂多. 竟不見小康之效. 悲夫.<sup>31)</sup>

中宗의 長短點을 記錄한 이 史論이 훨씬 說得力을 가진다고 하겠다. 性品이 仁柔하나 剛斷不足해서 善惡을 區分하지 못해 四十年間 在位했으나 治道는 적고 昏亂만 많았다고 본 것은 참으로 바른 論評이라 하겠다. 또 다른 史論에는 中宗이 天性은 仁慈 恭儉하나 優游不斷하여 아랫사람들에게 이끌리어 甄城君을 죽여 兄弟간의 友愛가 이 지러졌고, 愼妃를 내치고 朴嬪을 죽여 夫婦의 情이 없어졌으며, 福城君과 唐城尉를 죽여 父子간의 恩義가 어그러졌고, 大臣을 많이 죽이고 誅戮이 잇달아 君臣의 恩義가 野薄해졌으니 哀惜하다<sup>32)</sup>고 記錄하고 있으니 이것이 寸鐵殺人 正論直筆이 아닌가 한다.

## 2-2-나 <中宗實錄>에 記錄된 中宗의 疾病과 死因

朝鮮王朝<中宗大王實錄>에서 中宗에 대한 疾病의 記錄을 찾아보면 그의 生命을 威脅할 程道の 痼疾病을 앓은 痕迹은 보이지 않는다. 그를 가장 괴롭힌 것은 腫氣로 보이며 中宗의 나이 40세가 되는 在任 22년째인 丁卯年(西紀 1527년)에 腫氣를 앓았다는 記錄이 27년에 나오면서부터 그해 가을부터 다음해 28년 봄까지 그를 괴롭힌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57세가 되는 中宗 39년 1월부터 集中的으로 記錄되다 그해 11월 15일 臨終을 맞는다<sup>33)</sup>.

31) 上揭書, 卷19, P. 157.

32) 史臣曰. 上. 仁慈恭儉. 則出於天性. 然優游不斷. 牽於下人. 殺甄性. 而兄弟之好缺. 黜愼妃殺朴嬪. 而夫婦之好滅. 殺福城君及唐城尉. 父子之恩垂. 多殺大臣. 誅戮相繼. 而君臣之恩薄. 惜哉. 上揭書, 卷19, P. 157.

33) 中宗은 朝鮮 27대 왕 중 長壽 順位로는 제 7위(57세)이며 在位期間 순위로는 5위(38년 2개월)이다.

中宗이 45세되던 27년 陰曆 10월 21일(西紀 1532년)자의 <實錄>에 風寒症이 있어서 이로 인해 右側 어깨가 붓고 아프니 內醫院 官員 하종해와 홍침에게, 脈을 본 醫女의 말을 듣고 尙當한 藥을 지어 올리게 하라고 傳敎하자 이에 內醫院提調 장순손과 김안로 등이 ‘玉體가 便安치 못한 것이 風氣의 所致라 하더라고 當時에 禁忌해야 할 일은 모두 삼가야 하며 醫女의 醫術은 醫員만 못하니 醫員으로 하여금 診脈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아뢰어 위 두 사람이 脈을 보니 中宗의 脈의 度數가 점차 빨라진다고 記錄하고 있으며 10월 22일의 記錄에는 腫氣를 治療하는데 좋은 藥이라며 鄉藥 伊叱根脂를 使用하고 있고 珍膳을 갈수록 들지 못하자 五香連翹湯이 飲食의 맛을 없게 만드는 藥이기 때문이니 하루에 한 차례식만 服用하도록 하고 있다고 記錄하고 있다<sup>34)</sup>. 中宗 27年 10月 24日의 記錄에는 腫氣, 咳嗽, 齒痛의 合併症으로 苦生함을 알 수 있는데 中宗이 말하길, “腫氣의 症勢는 별로 差度가 없는데 咳嗽가 매우 甚하여서 기침이 나올 때의 흔들림으로 腫氣의 아픔이 더욱 加重된다. 그러니 먼저 咳嗽를 治療하면 齒痛도 나으리라 생각된다”고 하자 장순손 등이 “지금 따로 咳嗽藥을 올리고자 하나 다만 腫症이 重症이 될까 두려우니, 마땅히 먼저 腫症을 治療한 다음에 咳嗽를 治療해야 합니다. 症候가 한결같지 않으니 마땅히 緊急한 症勢부터 먼저 治療해야 하는데 醫員으로 하여금 대내에 들어와 症候를 診斷케하면 輕重을 알아서 治療할 수 있을 것입니다<sup>35)</sup>.”라고 아뢰고 있다. 同年 10월 28일 熱症으로 千金漏蘆湯을 使用하고 두 입술이 바짝 말라 龍石散을 썼다는 記錄이 보이고 10月 30日의 記錄에는 風寒으로 인해 右側 겨드랑이 아래에 腫氣가 나서 찌르는 듯이 아픈 症勢가 있음을 볼 수 있다. 同年 11월 2일 記錄에는 腫氣를 앓을 때는 젊은 女子로 하여금 가까이 모시게 해서는 안된다는 禁忌事項을 적고 있고 11월 4일자에는 心臟과 肺 사이에 熱氣가 있어 舌瘡가 생겼기 때문에 至寶丹을 人蔘湯에 타서 올린 記錄이 보인다. 同年 11月 6日에는 전날 鍼으로 腫氣를 터뜨려 고름이 많이 나오자 心氣가 便安하다고 中宗이 말하고 있다<sup>36)</sup>. 中宗이 46歲가 되는 28年 1月 9日의 記錄에는 굵은 腫氣症勢에는 鍼으로 터뜨려서 나쁜 피와 고름을 빼지만 膿이 생겨 아직 굵지 않은 것은 太一膏· 琥珀膏· 救苦膏를 계속 붙여 고름을 나오게 하고 있는데, 나쁜 피가 膿이 된 곳은 쉽게 굵지 않을 뿐더러 다시 鍼을 使用해 보았자 도움이 없으니, 쉽게 삭는 藥을 붙이는 것이 나올 것 같다고 下問하고 있다<sup>37)</sup> 28년 2월 1일에는 임금의

34) 上揭書, 券17, p. 384.

35) 上揭書, 권17, p. 385.

36) 上揭書, 券 17, p. 385.

37) 上揭書, 券 17, p. 388.

健康이 좋아졌다고 고 기록되어있으며 28年 2月 6日의 기록에는 腫氣에 나쁜 피가 영길 때는 거머리로 빨아 내게 하나 이미 굵아터진 後에는 쓰지 못한다고 되어있고 삼나무의 津液을 바르고 十宣散을 다 나올 때까지 服用해야하며 太一膏를 붙여야 한다고 藥房提調 장순손 등이 아뢰고 있다<sup>38)</sup>. 2월 11일에는 거의 回復되어 藥房提調와 醫員들에게 賞을 주고 있다. 2月 12日에는 瘡口가 아직 縫合되지 않았고 餘毒이 있다는 기록이 2月 20日의 기록에는 큰 症狀은 다 나왔으나 餘毒이 있어 나쁜 진물이 조금씩 나온다고, 2월 29일에는 가끔 진물이 나오고 묽은 물도 나오는데 묽은 물이 다 나와야 瘡口가 縫合될 것이라고, 3月 9日의 기록에는 아직 瘡口가 縫合되지 않아 누런 물이 나와서 膏藥(太一膏)을 부친다는, 3月 18日의 기록에는 묽고 누르스름한 물이 가끔 나오는데 이는 아직 瘡口가 다 아물지 않은 것이라고, 4月 12日에 가서야 임금이 快差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이후로는 腫氣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27年 10月 22日경부터 기록되기 始作한 腫氣가 근 半年만에 完治된 것이다.

中宗의 나이 57歲가 되던 39年 1月 17日자에 齒痛은 나왔으나 잇몸이 아직 아프고 기침병도 생겨서 經筵을 열지 못한다는 기록이 보이고 1月 18日에는 內醫院提調에게 感氣로 기침을 하여 맞는 藥 5貼을 지어 바치게 한 기록이 남아 있다<sup>39)</sup>. 39年 1月 29日 感氣가 들어 咳嗽證을 얻어 오래 視事하지 못했다고 되어있고 1月 30日의 기록에는 前日 두 번 藥을 먹었으나 冷痰과 咳嗽은 如前하다는 기록이 보인다<sup>40)</sup>. 39年 2月 1日자에는 전일 없던 症勢(약간의 頭痛과 咳嗽 喘息 渴症)가 생겼다고 하고, 內熱 症勢가 그치지 않아 渴症이 나서 물을 계속 마신다고 기록되어 있다. 39年 2月 2日자에는 感氣症勢로 因하여 脈搏이 一定하지 않다고 기록되어있다. 39年 2月 4日에는 頭痛과 喘息으로 苦生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39年 2月 5日에는 熱은 조금 내린 듯하나 咳嗽은 그치지 않아 參蘇飲을 處方하고 있다. 왜냐하면 中宗이 자꾸 藥을 먹으니 飲食 맛을 모르겠다며 藥 들기를 拒否해 參蘇飲은 胃를 열어 입맛을 돋구는 藥이라면 勸하자 許諾하고 있다. 39年 2月 6日에는 服用하던 小柴胡湯을 中止하고 간밤에 縮砂·杏仁·桑白皮·五味子를 가미한 參蘇飲을 들었더니 밤중이 지나자 全身에 땀이 나고는 病勢가 若干 가벼워지고 咳嗽도 조금 줄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39年 2月 9日자에는 지난번 咳嗽가 아직 完快되지 않은 狀態에서 추위를 무릅쓰고 經筵에 나왔기에 前日의 症勢가 再發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또 咳嗽症勢는 冷한 飲食을 過하게 먹어서 생긴 것이니 피하면 永久히 나올 것이라는 주문이 보인다<sup>41)</sup>. 잠깐 健康을 들어

38) 上揭書, 卷 17 p. 391.

39) 上揭書, 卷19, p. 35

40) 上揭書, 卷 19, p. 38.

傳位에 대해서 言及하는 대목이 나오지만 謙辭의 말임을 숨기지 않고 있다. 여기서 잠깐 中宗의 王權慾의 한 斷面을 엿볼 수 있다. 中宗 39年 4月 24日에는 임금의 肩胛痛 症狀이 나타나 救苦膏를 붙여도 보고 찜질을 해보아도 별 效果를 볼 수 없어 鍼灸治療는 중단할 듯하니 5월경에 五木水로 沐浴하는 것이 어떻겠는가고 묻는 記錄이 있다<sup>42)</sup>. 39年 4月 26日자에는 肩胛痛에 金絲萬應膏가 가장 좋다고 勸하고 있다. 대개 惡瘡를 잘 녹여내며 膿을 除去하고 새살이 나게 하며 風을 다스리는 材料가 많이 들어 있으니 동그랗게 만들어 救苦膏처럼 붙인다면 害롭지 않다고 內醫院提調들이 아 되고 있다<sup>43)</sup>.

39年 6月 29日의 記錄에는 齒痛으로 苦生하는 內容이 나와 있는데 아픈 이가 빠졌으나 다른 이가 또 흔들려 飲食을 먹기 어렵고 잇몸도 붓고 진물이 나오는데 마땅한 藥이 없는지 묻고 있다. 그러면서 熱氣와 感氣가 다 없다 할 수 없는데 대저 感氣에는 반드시 熱氣가 생기므로, 이가 움직일 때에 잇몸도 헐고 熱이 나니, 感氣 때문에 일어난 듯하다고 덧붙이고 있다. 이에 姜顯 등이 아뢰기를, “먼저 玉池散으로 養齒질한 다음에 淸胃散을 服用하고 牢牙散을 아픈 이 곁에 바르고 또 蓖麻子 줄기를 아픈 이에 눌러 무는데 뽕나무 가지(桑枝)를 써도 됩니다. 다만 牢牙散에는 羊脛骨灰를 넣으므로 쉽게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sup>44)</sup>.” 하였다. 여기서 中宗이 特別하게 뛰어난진 않지만 어느 정도 醫學知識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때는 王도 治療用으로 羊脛骨을 使用하는 것이 쉽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의 齒痛은 風齒로 思料되는데 요즘은 消滅되다 싶은 韓方齒科處方들의 臨床이 注目되는데 그 治療效果는 어떠했는지 매우 궁금하다.

中宗 39年 10月 6日자에는 中宗이 右側肩臂痛을 呼訴하면서 이병은 潛邸時節인 甲子 乙丑 丙寅年間に 風雪을 무릅쓰고 不撤晝夜 山과 들을 달려 風寒이 쌓여 생긴 慢性病인데 봄에는 惡化되고 여름에는 낫는 듯 하더니 近來에 다시 痛症을 느낀다고 말하고 있다<sup>45)</sup>.

약간 健康에 대한 記錄이 뜸하다가 39년 11월에 들어와서는 거의 매일 혹은 하루에도 여러 차례 中宗의 病勢를 記錄하고 있는데 이미 이 記錄부터는 中宗이 平素의 一般의이고 慢性的인 疾患이 아닌 臨終의 위한 前兆症狀들을 앓기 시작했음을 볼 수

41)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卷 19, 서울, 探求堂, 1986, p. 39.

42) 上揭書, 卷 19, p. 77.

43) 上揭書, 卷 19, p. 78.

44) 上揭書, 卷 19, p. 108.

45) 上揭書, 卷 19, p.147.

있다. 특별한 病이 아닌 心熱과 渴症을 呼訴하는데 醫員들이 心熱을 잡기 위해 여러 處方들을 쓰고 있지만 별 效力을 보지 못하고 있다. 中宗 自身이 心臟에 勞熱이 생긴 것이라고 말할 뿐 心熱의 源因에 대해서는 醫員들이 별다른 說明을 하지 않고 그저 對症治療로 心熱에 좋다는 處方들만 羅列하고 있을 뿐이다. 그 전전일부터 醫女가 출입하지 않자 11월 2일에는 內醫院 調劑가 醫員이 直接 出入하기를 勸하였으나 단지 心熱만 있다며 許諾하지 않자 心熱에는 黃連을 添加한 蓼蘇飲이 좋다고 하자 달여서 들이라고 傳教하고 있다<sup>46)</sup>. 11월 3일의 記錄에도 心熱이 주된 症狀인데 中宗이 內醫院提調 等에게 ‘지난 봄부터 心熱이 났는데 그때는 금방 그쳤는데 지금은 心臟에 勞熱이 있어 治癒가 늦고 몸이 매우 疲困하다고 呼訴하자 의원 박세거 洪침이 들어가 診察하고 왼손과 오른손의 脈이 浮緊하고 舌이 갈라지고 입이 마르고 몸에 熱이 나고 손바닥에도 煩熱이 있어 즉시 竹葉 乾葛 升麻 黃連을 小柴胡湯에 添加하여 두 번 服用하도록 달여 드리고 있고<sup>47)</sup>, 11월 4일에는 發熱과 말소리 緊澁, 呼吸急迫 症狀이 일어나 ,清心元·小柴胡湯·野人乾水 等を 드렸고<sup>48)</sup> 11월 5일에는 梅花湯과 桑枝茶를 올리고 그날 밤에는 小柴胡湯을 세 번이나 드렸으며 11월 6일 아침에는 梅花湯을 올렸으나 心熱과 渴症은 줄지 않는다고 記錄하고 있다<sup>49)</sup>. 同年 11월 8일에는 大便이 **깎아** 의원 박세거가 오후에 들어가서 診脈하고 말하길 “心肝脈이 조금 緩和되고 渴症도 덜하고 熱은 이미 줄었기에 天王補心丹과 生地黃膏를 번갈아 들이라는 뜻을 계청하고 나왔습니다.<sup>50)</sup>”고 記錄하고 있다.

11월 9일, 10일, 11일, 12일, 14일에도 繼續해서 心熱과 渴症이 그치지 않아 결국 15일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이 두 症狀을 鎮靜시키기 위해 9일에는 小柴胡湯에 清心元을 섞어서 投藥하고 黑豆과 竹葉 달인 물로 양치질하며 野人乾水를 服用시키고 10일에는 葛根과 升麻를 첨가한 涼膈散, 至寶丹, 人蓼湯을 달여 리고 있으며 이 날밤에는 胸膈과 煩熱이 심해 至寶丹 人蓼湯 野人乾水를 올리니 煩熱은 호전되나 心熱과 口渴은 如前했다고 기록되어 있다<sup>51)</sup>. 11일에는 心熱로 혀가 갈라지자 龍石散을 바르고 正午에 煩熱과 口渴이 나서 涼膈散을 올리고 저녁에는 野人乾水 涼膈散 至寶丹을 올리고 있으며 世子가 官員에게 香을 주어 宗廟 社稷 山川에 祈禱하게 하고

46) 上揭書, 卷19, p.153.

47) 上揭書, p. 153.

48) 上揭書, p.154.

49) 上揭書, p.154.

50) 上揭書, p.154.

51) 上揭書, p.154.

있다. 12日에는 心熱과 口渴이 그치지 않아 乾葛 升麻 黃連 麥門冬 人蔘을 加味한 羌活散과 五味子茶 및 秘丹을 올리고 午前에는 井華水에 탄 蘇合元을 올렸으며 저녁에는 乾葛, 乘馬, 黃連, 麥門冬, 人蔘을 添加한 羌活散과 五味子茶 黑豆 竹葉 달인 물을 올리고 있다. 13日에는 中宗의 病患이 매우 危篤하다고 記錄되어 있다. 14日에는 煩悶이 더 甚한데도 여러 가지 藥 들기를 싫어하여 野人乾水에 清心丸을 타서 올리고 있으며 中宗도 그의 臨終을 豫感하고 世子에게 傳位하라고 傳敎하기에 이른다<sup>52)</sup>. 이 날부터 陰縮症이 나타나고 精神昏迷하며 氣運이 지쳐서 午後부터는 昏睡狀態에 빠져 잠만 잘 뿐 전혀 말을 하지 못하고 前日에 比해 漸次 危篤해져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五臈寬中散과 蘇合元을 投與해보고 있지만<sup>53)</sup> 15日 午後부터는 藥조차 마시지 못하는데 이것이 <實錄>에 나타난 最後의 醫療處方이다. 마지막으로 세자가 古例에 따라 이미 祈禱는 드렸으니 罪囚들을 放免하는 問題에 대해 대해서 대신육경에게 問議하고 있으나 中宗의 生涯는 15日 午後 歡境殿에서 薨하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다. 그때 그의 나이는 57歲이고 在位期間 38年 2個月 2日였으며 道함 10명의 婦人에게서 20명의 자녀를 두었고 現在 서울 江南區 삼성동에 있는 靖陵에 묻혔다. 사후 廟號는 끊어지려는 社稷을 中興시킨 功이 있다하여 中宗으로 定했는데 仁宗이 父王의 功이 크을 들어 中祖로 해야한다고 주장했으나 大臣들이 祖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뜻을 굽히지 않아 끝내 宗으로 決定되었다.

2-3-가. 仁宗에 대한 小考.

王諱皓. 中宗大王長子. 母妃章敬王后尹氏. 生而岐嶷. 三歲能解書義. 六歲 封爲世子. 性況靜寡欲. 仁恭孝友. 勤於學問. 踐履篤實. 在東宮二十五年. 賢德著聞. 及其嗣服. 中外想望至治. 而執喪過哀. 遂至不諱. 且無嗣子. 惜哉在位一年. 壽三十一.<sup>54)</sup>

위 글은 朝鮮王朝<仁宗實錄>에 記錄된 그의 叢書인데 어릴때부터 聰明하고 性品이 仁恭孝友해서 先王의 大業을 이어받자 中外가 至治를 想望했었는데, 喪中에 너무 슬피한 탓으로 갑자기 昇遐하게 되었고 또 뒤를 이을 아들도 없었어 哀惜하다는 記錄이다.

仁宗은 1515年 中宗과 章敬王后의 맏아들로 태어나 1520年 여섯 살의 나이로 世子에 冊封되어 25年間을 世子로 머물다가 1544年 父王 中宗의 뒤를 이어 11월 20일

52) 上揭書, p.155.

53) 上揭書, p.156.

54) 上揭書, p.179.

조선 제 12代 王으로 登極했다.

그는 3歲에 能히 글의 뜻을 알 정도로 聰明했고 仁慈했으며 至極한 孝心の 所有者였다. 거기다 道學思想에 깊이 魅了되어 女子를 멀리하는 禁慾主義 者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文弱하고 善하며 여린 마음과 至極한 孝心때문에 아까운 才能을 發揮해 보지도 못하고 哭만 하다가 在位 8個月 보름 남짓만인 7월 1일 死亡하고 말았다. 그는 懦弱한 心性の 所有者이었기에 世子時節부터 權力慾이 강한 文定王后에게 틈을 보여주었을 것이고 結局 그것 또한 그의 壽命을 短縮시키는 한 原因이 되었을 것이다. 그는 繼母도 父母인데 父母가 죽기를 바라면 子息된 도리로 죽어주는 것이 孝를 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sup>55)</sup> 極端的인 孝行 追從者였다. 그러나 至極한 孝心도 그 度가 지나칠 때는 自己 몸을 亡치고 外家를 婿대밭으로 만들뿐만 아니라 나아가 國家에 큰 損失을 입힌다는 事實을 仁宗은 몰랐던 것일까. 더구나 그의 仁德과 資質이 남달랐음을 생각하면 더욱 안타까운 短命이지 않을 수 없다.

그의 廟號가 어질 仁자 仁宗이고 그의 陵號가 효도할 孝자 孝陵임을 살펴볼 때 그의 어진 性品과 至極한 孝誠이 卓越했음을 알 수 있다.

### 2-3-나.<仁宗實錄> 中에서 仁宗의 疾病과 死因

<仁宗實錄>에 나타난 疾病과 死因을 찾아보면 먼저 世子때인 中宗 28년 1월 19일의 記錄에 세자가 發疹기운이 있어 河宗海에게 진찰하게 하라했다고 나와 있다<sup>56)</sup>. 30歲가 되던 西紀 1544年 中宗 39年 11月 20日 昌慶宮에서 卽位하는 날 御座의 옆에 이르러 차마 앉지 못하고 오랫동안 鞠躬하고 서 있자 承旨가 앞으로 나아가 아뢰기를, '자리에 오르신 뒤라야 여러 臣下들이 賀禮를 올릴 수 있다'고 하자 임금이 이에 억지로 자리에 올라앉았으나 오히려 不安한 姿勢였고 너무 哀痛하여 눈물이 비오듯이 떨어지자 左右의 뜰에 있던 여러 臣下들도 오열하며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禮式이 끝나자 上이 또 걸어서 여차에 들어가 冕服을 벗고 도로 喪服을 입었다고 記錄하고 있다<sup>57)</sup>. 仁宗 1年 閏1月 1에 다섯 번 곡림을 조석전 두 번으로 줄여 줄 것과 3일에는 診察할 것을 請했으나 별 患候가 없다며 允許하지 않고 있다<sup>58)</sup>. "聖人도 病에 대해 愼重을 기하거니와, 賤한 사람일지라도 愼重을 기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은 父母가 남겨준 몸을 조금이라도 감히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인데, 더구나 宗社와

55) 박영규, 한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 서울, 들녘, P. 202.

56) 上揭書, 券17, P. 388.

57) 上揭書, 券17, P.161.

58) 上揭書, 券19, P. 190~191.



百姓이 매여 있는 임금의 한 몸이겠습니까? 위에서 바야흐로 喪中에 계시어 슬픔이 切迫한 탓으로 自身の 病을 깨닫지 못하시는 것이지만 위에서는 스스로 가볍게 여기려 하시더라도 宗廟 司直은 어찌하시겠습니까. “지나치게 슬피하여 病이 되게 하는 것은 잘못 가운데 큰 것이고 또한 孝道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萬一 위에서 작은 病이라서 念慮할 것도 못된다고 여기시고 調理에 疏忽하시다가 점점 깊은 病이 된다면 그때는 良醫가 있더라도 손을 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臣들은 言職에 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國家의 大計를 알고 있으므로 잠잠히 있을 수 없습니다. 大臣이 아뢴 바에 따라 빨리 醫員을 불러들여 診察하게 한 뒤에 藥을 議論하게 하소서.”하니 答하기를, “大臣과 藥房 提調가 醫員을 불러들여 診察하게 하고 藥을 쓸 것으로 啓請하였으나 나에게 별로 病이 없으므로 診察할 必要가 없다고 하였는데, 또 藥을 지어 바칠 것을 啓請하므로 그대로 하라고 命하였다. 나에게 病이 없는데도 診察하게 한다면 사람들이 보고 듣기에 놀랄 것이다. 只今 나에게 病이 있는 것이 아니라 山陵으로 發靱할 날짜가 臨迫하였으므로 미리 藥을 먹고 豫防하여 脾胃를 다스리려는 것인데, 반드시 불러들여 診察할 必要가 뭐 있겠는가<sup>59)</sup>”라며 允許하지 않고 있다. 이미 臣下들은 그의 病을 念慮하고 있는데 仁宗自身만은 아직 深刻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결국 그것이 그의 壽命을 短縮시킨다는 것도 모르고.

同年 1月 8日의 記錄에는 慈殿이 정원에게 仁宗이 饌膳을 前만 못하게 드신다고 藥房 提調와 議論하여 脈度를 잘 아는 醫員을 들여보내어 診察하라고 傳敎하고 있다<sup>60)</sup>. 1월 9일 記錄에는 仁宗의 玉體가 매우 瘦瘠하니 昌德宮으로 移御하여 調理하고 朝奠과 아침 上食은 親히 올리지 말 것을 請하자 發靱할 날이 가까웠으니 移御하지 못하고 病症이 없으니 朝奠과 아침 上食을 그칠 수 없다며 不許했으나 여덟 번 請하자 억지로 따르겠다고 記錄 하고 있다<sup>61)</sup>. 仁宗 1年 1月 9日에는 領議政 尹仁鏡 등이 慈殿에게 지나치게 슬피하여 하루에 다섯 번 哭臨하기 때문에 더욱 지치게 되므로 낮과 저녁의 上食과 夕奠에만 哭臨하시도록 請하였으나 允許하지 않으셨다며 大妃가 한 번 만루하기를 請하자 大妃가 脾胃가 傷한 症에 맞는 藥을 지어 올리며 勸하겠다고 記錄하고 있다. 仁宗 1年 1월 9일 記錄에는 醫員이 들어가 診察하니, **心肺와 脾胃의 脈이 微弱**하고 입술이 마르고 낮빛이 瘦瘠하며 때때로 가는 기침을 하였다.고 되어있다. 또 玉體가 매우 疲困하고 脾胃가 虛弱하니 世宗의 遺敎를 들며 病이 깊어지기 前에 미리 막아야 한다고 아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차차 살피겠다고 允許

59) 上揭書, 券19, P. 191.

60) 上揭書, 券19, P. 192.

61) 上揭書, 券19, P. 192.

하지 않고 있다. 仁宗 1年 1月 10日에도 臣下들이 仁宗이 거룩한 資質을 타고 나서서 至極한 聖情과 純粹한 孝誠으로 諒陰에 있으면서부터 極盡한 슬픔이 禮制에 지나쳤으므로 氣力이 지쳐 움직일 때에는 사람에게 副軸을 받아야 하며 心肺와 脾胃의 두 脈度가 다 弱한데, 이것은 슬픔이 지나친 탓이라고 하고 있다<sup>62)</sup>. 仁宗 1年 1月 25日자의 記錄에는 發軔 날짜가 臨迫하여 醫員에게 診察을 받았는데 醫員 朴世舉 등이 들어가 診察하고 나와서 말하기를, “心肺와 脾胃의 脈度가 前보다는 조금 回復되었으나 饌膳을 드시려 하지 않으므로 元氣가 微弱합니다.” 記錄하고 있다<sup>63)</sup>. 仁宗 1年 1月 25日, 26日 27日 3日間을 여러 臣下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山陵行次한 仁宗에게 玉體가 瘦瘠하였는데 또 큰 變故를 만나 哀痛해하여 瘦瘠하신 것이 中途에 지나쳐서 元氣도 매우 虛弱하여 病이 날 兆朕은 醫員이 아니라도 알 수 있으며 밤에 문밖에서 祇送하고 또 바람과 이슬을 무릅쓰면서 멀리 山陵에 까지 나아감으로써 上의 玉體가 勞苦하게 되어 病이 虛弱한 틈을 타서 發生하게 된다면, 그것은 先王을 슬프게 하는 것이고 아들은 父母의 마음을 自己 마음으로 삼아야 孝道라 할 수 있는 것인데 孝道를 다 하려 하다가 도리어 孝道를 傷하게 한다면 眞정 孝道라고 할 수 없으니 문밖에서 祇送하고 山陵에 親行하는 것을 中止할 것을 請하였으나, “나도 아들인데 이러한 일을 하지 못한다면 어디에다 나의 마음을 나타낼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이렇게 말하니 더욱 슬프다.”하며 따르지 않고 있다.<sup>64)</sup> 同年 1月 29日에도 세 차례나 여러 臣下들이 번갈아 가며 胃의 脈度에 損傷이 많아 元氣가 매우 虛弱하신데 山陵에 舉動하고 걸어서 따라가시면 哀痛과 勞動이 極甚하여 반드시 重한 症勢가 될 것이라며 山陵 行次의 中止를 請하나 따르지 않고 있다. 그리고 山陵에 親行하시는 일은 멈출 수 없다면 祇送이라도 闕門 안에서 하라고 請했으나 따르지 않고 있다<sup>65)</sup>. 정말로 하늘이 내린 孝자가 아닐 수 없다.

同年 6月 4日의 記錄에는 藥房 提調들이 問安하고 上의 玉體가 便安하지못하시다는 말을 들으니, 至極히 답답하고 念慮된다고 아뢰니 더위 症勢가 조금 있을 뿐이니 門安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sup>66)</sup>. 6月 25日에는 임금이 편치않다(未寧<sup>67)</sup>.)는 記錄이 보인다. 같은 날 다시 記錄하기를 정원이 問安하고 아뢰기를 “이제 朴世舉에게 물었

62) 上揭書, 券19, P. 192.

63) 上揭書, 券19, P. 195.

64) 上揭書, 券19, P. 195.

65) 上揭書, P. 196.

66) 上揭書, P. 249.

67) 上揭書, P. 252.

더니 上의 玉體가 衰弱하신 것이 初喪 때보다 훨씬 더하다 하니, 臣들은 답답하고 念慮됨을 견딜 수 없습니다. 上께서 春秋가 한창이시고 목은 病이 깊은 것도 없는데 이토록 極度에 이르게 된 것은 아마 權制를 따르지 않은 탓인 듯하니 더욱이 몹시 답답합니다.” 하니, “이미 權制를 따르기는 하였으나 痢疾의 症勢가 잇달아 일어나서 飲食을 먹지 못하니, 權制를 따른 데에 무슨 보탬이 있겠는가. 醫員은 별로 다른 症勢가 없다 한다.<sup>68)</sup>”고 對答하고 있다. 여기서 卽位 初보다 病이 깊어졌음을 알 수 있고 仁宗이 特別한 疾病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처음으로 痢疾의 症勢가 보인다.

6月 26日の 記錄부터 仁宗의 病勢가 急迫하게 나타나기 始作한다. 그전에 이미 6月 18日 경사전에 가서 晝茶禮를 지내고 還宮했는데 이것이 마지막 경사전의 祭祀라고 實錄은 記錄하고 있다. 그리고 病勢에 대한 記錄도 여러 차례 보인다. 임금의 눈동자가 술 醉한 사람처럼 시원히 뜨지 못하고 손바닥이 매우 덥다고 記錄하고 있으며, 갑자기 病이 危篤하다는 用語까지 이날 登場한다. 그리고 馬 세 필을 빨리 안장을 갖추어 들이라는 分付해서 暫時 後에 刑曹 判書 尹任과 그 아들인 內乘 尹興仁이 안장을 갖춘 白馬를 끌고 內庭으로 들어갔다<sup>69)</sup>고 記錄하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閭閻에서 巫堂의 말에 眩惑되어 病든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代身하게 하는 方術을 하는 것이라고 敷衍說明하고 있다. 方術을 써야할 정도로 仁宗의 病勢가 惡化된 것이다. 6月 27日에는 임금의 病患이 危篤하다고 記錄하고, 또 유지번이 임금을 診察하고 나와서 말하길 “임금의 症勢는 熱이 深하여 혹 헛소리를 내시는데 藥을 올리려 하여도 물리치시고 드시려 하지 않으니 어찌합니까?”라며 안타까워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론 祭官(祭官)으로 하여금 社稷·宗廟·景思殿·永寧殿·昭格署와 名山·大川에 祈禱하게 하고 있다<sup>70)</sup>

그리고 臨終하기 하루前인 6月 29日은 가장 緊迫한 하루였다. 나인들이 말하길 “잠이 들었다가도 熱에 괴로워하시고 헛소리를 하시며 氣運이 脫盡한 常態이고 목소리가 다급하여 여느 때와 다르시며 미음을 勸하여도 藥을 勸하여도 氣運이 虛弱하고 입에 거슬려서 받아들이지 못하신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柳之蕃이 말하기를 ‘내가 보기에 上의 症勢가 반드시 脈이 가라앉을 걱정이 있을 듯하다. 病의 뿌리가 脾胃가 損傷된 데에서 나왔는데 이토록 飲食을 끊고 藥을 물리치시니 危殆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sup>71)</sup>’ 하고 있다.

68) 上揭書, P. 252.

69) 上揭書, P. 252.

70) 上揭書, P. 254.

71) 上揭書, P. 254.

仁宗은 이날 病의 症勢가 時時刻刻으로 惡化되어 危急해져 가고 있는데, 脈度도 微細하고 잦아지며 中間에 끊어지기도 하여 精神이 錯亂할까봐 유지번과 박세거 등이 小柴胡湯을 권해서나 “내 病이 어찌 이 藥을 마시고 곧 낫겠는가.”하면 拒絶하고 尹任(仁宗의 外三寸) 등을 돌아보며 “趙光祖를 復職시키고 賢良科를 復用하는 일은 내가 늘 마음속으로 잊지 않았으나 미처 勇氣있게 決斷하지 못하였으니, 참으로 平生의 큰 遺恨이 없지 않다.”<sup>72)</sup>하며 혀를 차면서 歎息할 뿐이었다고 記錄하고 있는데서 그의 哀歡을 알 수 있다. 그제서야 이미 죽음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게 된 한 孤獨한 임금이 自身의 政治를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죽어야만 하는 冤痛함의 歎息이리라. 이날 危急함을 알고 中宮은 內班院에 避御할 것을 勸하고 領相等은 內班院이 낮고 濕하며 더러우므로 承政院에 避御하는 것만 못하다 하여, 두 곳을 수리하여 기다리게 하였으나, 仁宗의 症勢가 極度로 惡化되어 避御조차 하지 못한다<sup>73)</sup>. 이날 申時에 仁宗의 症勢가 極度로 危急해지자 中宮이 어찌할 수 없으므로 손가락을 잘라 피를 바치려 하였지만 말이 밖으로 새나가 領相 윤인경 등이 눈물을 쏟으며 손가락을 자르는 것은 이 症勢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請하여 멈추게 하고 있다. 이어 朴世擧가 들어가 아뢰기를 “上께서 어찌하여 스스로 너그럽게 하지 않고 너무 슬퍼하고 傷心하십니까? 애쓰실 것은 飲食을 들고 빨리 調理하시는 데에 있을 뿐입니다.” 하니, 仁宗이 尹任을 돌아보며 “그가 무슨 일을 말하였는가?” 하자, 尹任이 事實대로 對答하였으나, 仁宗은 氣運이 처져 對答조차 하지 못한다. 이날 밤 三境에 仁宗이 氣絶하였다가 다시 살아나서 말하길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慶元大君에게 傳位한다는 말을 남기고<sup>74)</sup> 다음날인 7월 1일 卯時에 清讌樓 아래 小寢에서 31歲의 짧은 나이로 薨逝<sup>75)</sup> 하고 말았는데 卽位 한지 閏正月 포함 8個月 보름 만이었다. 婦人으로 仁성왕후 朴氏와 귀인 정씨를 두었으나 膝下에 子息은 단 한 명도 두지 못했다.

### 3. 總括 및 考察

燕山君은 西曆 1476年 成宗의 元子로 태어나 19歲인 1494년 12월 王位에 올라

72) 上揭書, P. 255.

73) 上揭書, P. 255.

74) 上揭書, P. 256.

75) 上. 薨于清讌樓下小寢. 上揭書, P. 256 上.

11年 9個月째가 되던 1506년 9월 폭정에 견디다 못한 臣下들의 反正으로 廢黜되어 江華道로 유배된지 2個月만인 11월에 疫疾에 걸려 31歲를 日記로 그곳에서 死亡했다. 膝下에는 廢妃 申氏외에 失名の 한 後宮에게서 각각 2男 1女 즉, 4男 2女를 두었다.

<燕山君日記>에는 燕山君의 疾病에 대해서 많이 記錄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그의 죽음 또한 釋然치 않다. 中宗 元年(燕山君 12년)11月 7日자에 燕山君이 疫疾에 걸렸다는 報告를 받고 中宗이 醫員을 보내 求療하게 命하는데 다음날인 11月 8日의 報告에는 이미 燕山君이 초엿새에 死亡했다고 아뢰고 있기 때문이다.

燕山君은 어릴 때부터 健康에는 特別한 異常이 없었던 걸로 推測된다. 卽位 元年 頻尿症에 縮泉元<sup>76)</sup>과 뜰요법 거기다 잠방이 속에 산양피를 붙여 효과를 보고 있다. 面瘡에 鍼을 맞고 桑灰水로 씻고 寒水石과 梧桐淚가루와 雄黃가루를 발라도 效果를 못봐 雄黃解毒散을 溫水에 타서 씻은 후 善應膏를 붙이고 있다. 이 밖에 胸膈痛 感氣(咳嗽) 頭痛 眼疾 舌炎 傷心症 泄瀉 등의 疾患이 <燕山君日記>에는 記錄되어 있다. 그러나 이 疾患들은 그렇게 重症의 症勢가 아니고 단지 經筵에 나가지 않을 핑계거리 정도로 보여진다. 그리고 治療方法도 나와 있지 않다. 그는 母情없이 어린시절을 불우하게 보낸 뒤 王位에 올랐고 그 후에 母親의 死亡源因을 알고 狂的으로 變했기에 어찌면 精神科의인 질환이 그의 가장 큰 질환이 아니었나 싶다. 그리고 그의 갑작스런 死因도 疫疾이전에 王座에서 廢黜되면서 이미 삶의 意味를 잃어버린 脫營과 失精에서 起因했다고 보는 것이 妥當하다 할 것이다. 즉, 갑자기 폐위된 自愧感和 虛脫 忿怒 侮蔑感에 이미 感情을 調節하지 못한 나머지 食慾과 삶의 意慾이 사라지면서 免疫性이 급속히 떨어져 疫疾에 쉽게 感染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中宗은 서기 1488年(成宗20年) 成宗과 그의 繼妃 貞顯王后 尹氏 사이에서 태어났다. 1494年 진성대군에 봉해졌으며 1506年 9월 그의 나이 19세 되던 해 박원중, 성희안, 신유무 등이 反亂을 일으켜 燕山君을 廢黜하고 그를 朝鮮 11代 王으로 擁立했다. 그의 在任期間은 1506년 9월부터 1544년 11월까지 38년 2개월이었다. 그의 나이 57세 되는 1544년 음력 11월 15일 病死했다. 王位를 世子인 仁宗에게 讓位한 하루 뒷날이었다. 膝下에 10명의 婦人에게서 20名의 子女를 두고 靖陵에 묻혔다. 그는

76) 東醫寶鑑에는 縮泉元으로 나와 있으나 方藥合編에서는 縮泉丸으로 되어있다. 葉代환의 '東醫方劑學'에는 縮泉丸이 축천원의 異名이라고 되어 있다. 東醫寶鑑에서는 이 處方의 출전을 '醫學入門'으로 밝히고 있으나 1575년에 간행된 醫學入門은 이시기에는 발행되지 않았기에 燕山君이 醫學入門 처방을 썼다고 볼 수는 없다. '中醫大辭典'에는 송대 魏峴이 1227년 간행한 '魏氏家藏方'방과 명대 薛己의 撰인 '校注婦人良方'방이 나오는데 아마 魏氏家藏方의 처방을 썼으리라고 思料된다. 다만 魏氏家藏方은 世宗대에 編纂된 '醫方類聚'의 153부의 引用書로 登錄되어 있지는 않다.

38년 2개월이란 적지 않은 세월을 帝王의 位에 있었지만 朝鮮史에 뛰어난 業績을 남기지 못했다. 그만큼 그의 政治力은 限界가 있었던 것이다. 卽位 初期 4년간은 박원중으로 代表되는 反正功臣 勢力에 숨죽여 지냈으며 1510년 영의정 박원중이 갑자기 죽어 공신의 勢力이 弱화되자 趙光祖를 登用시켜 改革性向의 王道政治를 標榜하며 功臣 勢力을 牽制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功臣勢力에 대한 牽制效果만 보았을 뿐 그 스스로가 徹底한 王道政治의 哲學이 없었기에 4년만에 조광조의 急進的 改革性向에 싫증을 느끼고 그를 兎死狗烹시키고 만다. 이것이 바로 저 有名한 ‘乙卯土禍’이다. 그 후 ‘신사무옥’ ‘東宮 작서의 變’ 등이 일어나면서 政治的 混亂이 繼續된다. 그리고 外交國防 政策도 未洽해 北으로는 4군 6진 地域에 南으로는 三南海岸地域에 野人과 倭寇들이 頻繁히 侵入하는 등 國境에서 끊임없이 分爭이 일어났다.

中宗의 疾患으로는 肩臂痛 風寒症 腫氣 感氣(咳嗽, 聲重) 齒痛 心熱症, 渴症 등과 下道가 막히셨을 때 蓖麻子油로 效驗을 보았다는 기록이 보인다.

死亡하기 하루전인 39年 11月 14日에는 陰縮症이 나타나서 乾葛, 升麻, 黃連, 麥門冬, 人蔘을 添加한 羌活散과 蘇合元을 處方하고 있다.

그 治療方法을 보면 그를 가장 괴롭혔던 腫氣에는 伊吡假脂療法과 水蛭療法이 使用되고 鍼으로 腫氣를 터뜨리거나 太一膏 琥珀膏 救苦膏 등의 外用藥을 使用하고 때로는 삼나무 津液을 바르고 十宣散도 服用하고 있는데 膏藥으로는 太一膏<sup>77)</sup>를 服用藥으로는 十宣散<sup>78)</sup>을 주로 使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熱症에는 千金漏露湯이나 龍石散을 쓰고 있다. 心熱과 渴症에는 淸心元, 小柴胡湯, 野人乾水, 梅花湯을 處方하고 있다. 肩胛痛에는 金絲萬應膏를 處方하고 있다. 腫氣다음으로 그를 괴롭힌 齒痛의 治療에는 玉池散<sup>79)</sup>으로 養齒質한 다음에 淸胃散<sup>80)</sup>을 服用하고 牢牙散을 아픈 이 곁에

77) 이는 太乙膏라고도 하는데, 東醫寶鑑에도 太乙膏로 나와 있으며 雜方으로 되어있다. 方藥合編에는 보이지 않는다 中醫大辭典에는 ‘和劑局方’, ‘外科準繩’, ‘外科正宗’ 등이 나와 있는데, 1602년과 1617년에 간행된 뒤의 두 저작보다는 1107년에 간행된 和劑局方의 處方을 썼으리라고 본다. 和劑局方은 醫方類聚의 인용서에 들어가 있다.

78) 方藥合編에는 없고 東醫寶鑑에는 外科精要(1263년 陣自明 撰: 韓醫學大辭典·醫史文獻編)方으로 실고 있는데 癰疽와 瘡癤을 치료하고 排膿生肌의 效力이 있다고 되어 있다. ‘中醫大辭典’에는 十奇散 또는 托里十補散이라고도 하며 ‘證治準繩(1602년 王肯堂撰)과 ‘重訂嚴氏濟生方’이 나오는데 ‘嚴氏濟生方’(1253년 嚴用和 撰)이 東醫寶鑑의 處方과 일치하고 있으며 外科精要和 함께 醫方類聚의 인용서에도 들어있는 것으로 봐서 中宗도 이 處方을 사용했으리라 본다.

79) 方藥合編과 東醫寶鑑 모두에 수록되어 있는 처방이다. 東醫寶鑑에는 출전을 ‘直指’로 밝혀놓고 있는데, 中醫大辭典에서는 ‘和劑局方’으로 실고 있다.

80) 方藥合編, 東醫寶鑑에 다같이 나와 있다. 東醫寶鑑에서는 出전을 東垣이라고 밝혀놓고 있는

바르고 蠶麻子 줄기를 아픈 이에 눌러 무는 方法을 使用하고 있다. 여기에서 눈여겨 볼 것은 牢牙散에는 羊脛骨灰을 넣기 때문에 쉽게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적고 있다. 그 당시에는 宮中에서도 羊을 求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貴했던 모양이다.

中宗의 健康은 그렇게 虛弱해 보이지 않는다. 腫氣病이 中宗實錄 中에서 가장 頻繁히 나오는 것으로 봐서 그의 代表的인 疾患으로 볼 만하다. 그렇다고 文宗이나 孝宗 正祖처럼 腫氣가 그의 壽命을 左右할 정도로 極甚한 것은 아니었다. 그밖에 齒痛·咳嗽 등을 앓았지만 그럭저럭 그는 그 當時의 平均壽命 以上(57세, 재위기간 39년)을 누렸고 그의 死因도 특별한 疾病이 아닌 老患(心熱, 渴症, 煩悶)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런데 中宗 39年 11月 14日에 中宗이 매우 목숨이 危重하자 世子에게 傳位하는 敎書를 내리고 숨이 끊어질 지경에 이른다. 이날 史官은 醫官도 하지 않은 다음과 같은 글로써 中宗의 發病原因을 記錄하고 있는데 일부 옳은 면도 없지 않으나 中宗의 착한 辯護人임을 認定하지 않을 수 없다. 老獐한 權力者의 一面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

上即位之後. 權奸用事. 擅亂朝政. 致有骨肉之禍. 宜乎用憲. 竟底於疾. 既不能明睿燭物. 而委柄 奸兇. 又不能奮發乾剛. 隱忍而從之. 積成膏肓之疾. 終於不救之慟. 嗚呼哀哉.<sup>81)</sup>

仁宗은 1515年 中宗과 章敬王后의 맏아들로 태어나 1520年 여섯 살의 나이로 世子에 冊封되어 25年間을 世子로 머물다가 1544年 父王 中宗의 뒤를 이어 11월 20일 조선 제 12代 王으로 登極했다.

그는 3歲에 能히 글의 뜻을 알 정도로 聰明했고 仁慈했으며 至極한 孝心の 所有者였다. 거기다 道學思想에 깊이 魅了되어 女子를 멀리하는 禁慾主義者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런 그의 文弱하고 善하며 어린 마음과 至極한 孝心때문에 아까운 才能을 發揮해 보지도 못하고 哭만 하다가 在位 8개월 보름 남짓만인 7월 1일 死亡하고 말았다. 至極한 孝心도 그 度가 지나칠 때는 자기 몸을 망치고 외가를 殃대밭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나아가 國家에 큰 損失을 입힌다는 事實을 仁宗의 例에서 볼 수 있다. 더구나 그의 才能이 남다름에서야.

<仁宗實錄>에서 仁宗의 특별한 疾患을 發見되지 않는다. 다만 中宗 28년 1월 19일 세자가 發疹기운이 있어 河宗海에게 診察하게 하라했다고 나와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는 先天的으로 健康한 體質은 아니었고 文弱한 體性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는 在位期間이 閏1월을 合해 高작 9개월 가량밖에 되지 않는다. 이 8個月 반정도의 在位

데, 中醫大辭典에서는 '脾胃論'이라고 되어 있다. 脾胃論은 李東垣이 13세기경에 간행한 책으로 醫方類聚에 그의 다른 著書인 內外傷辨惑論 蘭室秘藏 東垣試效方 등과 함께 引用書에 올라있는 것으로 봐서 이 처방을 썼다고 하겠다.

81) <朝鮮王朝實錄> 卷 19, P. 156. 上

期間동안 그는 별다른 病없이 그저 父王의 죽음에 대한 지나친 슬픔과 지나친 孝道(葬禮 禮道)로 자기 몸을 酷使하고 攝生調理하지 못해 死亡하고 만다. 1544년 中宗39년 11월 20일에 昌慶宮에서 卽位한 날로부터 지나친 哀痛과 饑膳(飮食)의 不實, 그리고 하루 다섯 번의 哭臨 등으로 健康이 惡化돼 身體가 매우 瘦瘠하고 氣力이 消盡되어 다음해 1月初쯤에는 움직일 때 사람의 부축을 받아야할 지경에 이르고 있다. 지나친 슬픔으로 心肺와 脾胃의 機能이 弱해졌기 때문이었다. 즉, 醫員들의 診斷을 綜合해보면 脾胃가 傷함, 입술이 마름, 낮빛이 瘦瘠, 가는 기침, 元氣虛弱 등을 들고 있고, 그 處方으로 過度한 哭臨을 줄이고, 지나친 슬픔과 禮度를 禁할 것, 饑膳을 잘 드실 것, 山陵에 親行하는 것을 中止할 것을 주문하지만 仁宗은 별 일이야 있겠느냐면서 實踐하지 않아 心身破壞를 自招하고 있다. 이미 中宗이 病席에 있을 때 一一이 藥을 먼저 맛보는 등 자리를 지켜 至極精誠한 孝誠으로 몸을 축낸 後였는데도.

1월 以後에는 한동안 疾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다가 갑자기 6월 22日경부터는 玉體가 極도로 衰弱하고 天顏에 萎黃한 빛이 많고 6월 25日에는 痢疾症勢로 飮食을 먹지 못하며 6월 26日에는 눈동자가 술 취한 사람처럼 시원히 뜨지 못하고 손바닥이 매우 덥다는 急迫한 記錄들이 나타나기 始作한다. 그리고 곧 發熱과 헛소리를 하며 氣絶했다가 깨어나기를 反復하다가 결국 7월 1日 昇遐하고 만다. 臨終 하루 前인 29日 小柴胡湯을 勸해보지만 내 病이 이 藥으로 낫겠느냐며 물리치고<sup>82)</sup> 趙光祖를 復職시키고 賢良科를 復用시키지 못한 것이 平生의 恨이라며 탄식하다가 夜중에 氣絶했다 다시 깨어나 慶元大君에게 傳位한다는 傳敎는 내렸었다.

結局 仁宗의 死因을 살펴보면 원래 身體가 懦弱하고 性品이 柔善한 사람으로서 孝道 또한 極盡하여 父王의 葬禮節次동안 지나치게 哀痛해하여 攝生과 調理를 疏忽하여 自身の 健康을 돌보지 않은 나머지 心身이 극도로 瘦瘠하고 脾胃가 傷하고 元氣

82) 方藥合編과 東醫寶鑑에 다 收錄되어 있는 代表的인 和解 처방이다. 中醫大辭典이나 ‘方劑學’(李尙仁 등 공편)에는 ‘傷寒論’으로 되어있다. 이미 ‘醫方類聚’에 傷寒論이 引用書로 들어있는데 東醫寶鑑에서 그 출전을 ‘醫學入門’으로 하고 있다. 方劑學에는 醫方集解 處方과 中醫方劑學 處方 方藥合編 處方 등 3가지 處方을 싣고 있는데 構成藥物은 柴胡, 黃芩, 人蔘, 半夏, 甘草, 生薑, 大棗로 同一하나 君臣佐使아 用量은 다 다르다. 半表半裏, 寒熱往來, 胸脇苦滿, 苦口咽乾 등의 證에 使用한다고 되어있는데 中宗도 臨終시에 心熱과 口渴을 鎮靜시키기 위해 多用한 處方이다. 典型的인 少陰人으로 보이는 仁宗에게 典醫들이 脾胃가 損傷되어 病이 되었다고 하면서 補中益氣湯이나 歸脾湯 등의 補脾胃나 補心血시키는 藥을 處方하지 않는 것에 매우 疑問이다. 아무리 슬퍼서 울어도 脾胃가 旺盛하면 虛飢가 저서 食慾을 느낄 것이다. 脾胃가 弱해서 食慾이 없는 사람에게 슬퍼하지 말고 밥이나 많이 먹으라고 하고 있으면 진정한 醫員이라 할 수 없다. 밥맛이 멍기게 처방을 해야 하리라. 臨終直前に 小柴胡湯을 處方해서 어찌겠다는 것인지. 이미 仁宗은 中宗의 臨終시 小柴胡湯을 미리 많이 試藥해보아서 그 無用性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가 衰弱해서 31세의 짧은 나이로 삶을 마감했다고 보여진다. 仁宗은 특별한 疾病이 든 것도 아니고 그러다보니 적절한 治療藥도 服用해보지 못한 채 死亡하고 있다. 전적으로 實錄의 記錄에만 依存한다면 그의 死因은 지나친 슬픔과 과도한 孝行으로 지친몸에 穀氣조차 제대로 攝取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野史에는 그가 그의 繼母 文定王后가 내놓은 毒이 든 떡을 먹고 시름시름 앓다가 얼마 못가 死亡했다고 되어 있다. 平素에 그를 그렇게 미워하던 繼母 文定王后가 그날은 반기며 떡을 주자 기쁜 마음으로 아무 疑心 없이 맛있게 그 떡을 먹었다고 한다<sup>83)</sup>. 6月 22日경부터 갑자기 病勢가 惡化되어 8日만에 死亡한 것을 보면, 어느 정도 野史에도 信憑性이 있을 수 있다 하겠다. 한 예를 들자면 <世祖實錄>에는 그의 具體的 疾患이 記錄되어 있지 않고 그저 ‘上(임금)이 편치않다’(不豫)고만 記錄되어 있다. 그러나 野史에는 皮膚病을 앓았다고 전해내려 오고 있었고 근래 상원사에서 世祖의 피고름이 묻은 속옷이 發見되어 이것이 事實로 밝혀진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9/16일,KBS,역사스페셜)지나친 슬픔도 病이 될 수는 있겠지만 31歲의 한창 나이의 사람이 다른 큰 疾患도 없이 슬픔과 攝生不足으로 그렇게 쉽게 死亡한다는 것에는 常識적으로 생각해보아도 뭔가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 하겠다. 그러나 위의 實錄記錄을 통해서 만든 이 밖의 精確한 死因을 밝히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는 道學思想에 빠져서 禁慾生活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 結果적으로 그렇게 되었지만 그 스스로 繼母를 위해 아들을 낳지 않고 동생인 慶原大君에게 王位를 물려주기 위한 孝心에서였는지 그도 저도 아니면 生殖能力이 없는 男子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仁성왕후 박씨와 귀인 정씨 등 부인을 둘 두었지만 後嗣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앞의 두 가지 이유도 可能性이 있다 하겠지만 슬픔이 병이 되어 재위 9개월만에 死亡한 그의 健康으로 類推해볼 때 어찌면 세 번째 例가 正確한 源因이 아닐까하는 생각도 든다.

#### 4. 結論

이상으로 <朝鮮王朝實錄>에 기록된 燕山君, 中宗, 仁宗의 疾患과 그 治療法 및 死因을 整理·考察해 보아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83) 박영규, 한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 p. 203.

1. 燕山君의 身體는 健壯했던 것 같고 在位期間중에도 特別한 疾患은 없었는데, 廢黜된지 두 달만에 31歲의 나이에 강화도에서 疫疾로 死亡하는데 이는 하루아침에 빼앗긴 권좌의 아쉬움이나 忿怒, 悔恨, 冤痛함 등이 뒤섞여 食慾과 삶의 意慾을 잃자 元氣가 損傷되어 쉽게 外邪에 侵害당했으리라고 思料된다. 韓醫學的 診斷으로는 失精과 脫營이 極해 달하자 內傷과 外邪가 合作하여 그의 生命을 앗아갔다고 推測할 수 있겠다.
2. 中宗은 그렇게 剛健하지도 그렇다고 매우 虛弱하지도 않은 普通의 體力을 가진 것으로 推測된다. 38年 2個月 동안 王位에 머물며 57歲나 산 것 만치 여러疾患들을 앓았지만 그 모든 疾患들이 生命에 支障을 줄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여러 疾患 中 腫氣를 가장 頻繁히 앓았고 그 다음으로 齒痛 關節風濕病(肩胛痛) 등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그 當時의 平均壽命으로는 長壽한 편에 드는 57歲 되던 해 11月 20日에 心熱과 口渴 등으로 死亡하게 되는데 心臟病이나 糖尿病이 源因이 아닌 老患으로 死亡한 것으로 보인다.
3. 仁宗은 원래 文弱하고 心脾가 虛損한 體質에 內因인 七情 중 哀의 掩襲을 받아 헤어나지 못하고 끝내 穀氣不調攝으로 精氣神이 燥散해서 死亡하고 말았다. 孝誠도 지나치면 不孝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가면서도 孝誠을 지켜 결국 不孝뿐만 아니라 自己 몸을 亡치고 外家를 滅失시키고 나라까지 混亂속에 몰아 넣은 主人公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結果論적인 바램이지만 저 明宗때의 도둑들의 猖獗이나 뒤이은 두 外亂은 仁宗이 修身(健康)을 잘하여 2~30년간 朝鮮社會를 指導했다면 달라졌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世上을 이끌 만큼 강한 指導力의 所有者는 아니었던 것이다.
4. 韓醫學에서 內因으로 認識하는 七情에 지나치게 支配당하는 사람은 本人의 健康은 물론 나라도 망친다는 것을 燕山君과 仁宗의 例에서 우리는 볼 수 있었다. 激情과 浪漫的 感情의 지배를 받던 燕山君은 政治人이 아니라 한 詩人이자 藝術家로 살았으면 그의 藝術과 生命도 成功했을 것이고, 나라와 百姓에 대한 큰사랑보다 個人史的 感情과 禮節에 連延해했던 仁宗 역시 士大夫家의 한 道學者로 살았으면 生命도 年長시키고, 훌륭한 學者가 되었으리라 본다. 感情의 支配를 받는 자는 偉大한 政治家가 되지 못할 蓋然性이 많다. 春花와 暴風寒雪이 亂舞하는 現實世界를 指導하려면, 百姓을 사랑하는 善한 마음과 德性뿐만 아니라 現實을 꿰뚫어보는 마키아벨리나 韓非子적 머리 또한 가져야 한다. 그런 意味에서 燕山君과 仁宗은 王位에 오른 것 自體가 그들의 人生行路에 있어서 한 悲劇의 序幕이었던 것이다.
5. 이상의 임금들에게서 共通된 治療法 하나가 눈에 띄는데 鍼藥으로 가망이 없는

臨終直前の 始點에서는 꼭 宗廟社稷과 名山大川에 祭祀를 지내고 罪囚들을 放免하는데, 이것은 宗教的인 祈禱나 積善을 통해 超自然的인 기적을 企待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行爲도 窮極의으로는 僥倖을 바라는 虛無孟浪한 心理에서라기보다 積善을 하고 祈禱를 함으로서 善者나 죽을 者의 靈魂을 스스로 慰安하기 위함이 아닌가 한다.

#### 參考文獻

1. 國史編纂委員會; 朝鮮王朝實錄, 서울, 探求堂(頒布處)1986.
2. 世宗大王記念事業會. 民族文化推進會. 서울시스템; 國譯朝鮮王朝實錄CD-ROM, 서울, 서울시스템, 1997.
3. 許浚;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86.
4. 金斗鍾; 韓國醫學史, 서울, 探求堂, 1998.
5. 金斗鍾; 韓國醫學文化大年表, 서울, 探求堂, 1982.
6. 金斗鍾; 東西醫學史大綱, 서울, 探求堂, 1979.
7. 박영규; 한권으로 읽는 朝鮮王朝實錄, 서울, 들녘, 1996.
8. 金勳; 朝鮮前期君王들의 疾病研究, 원광대학교박사논문, 1997.
9. 송수환, 甲子士禍의 새解釋, 사학연구57호, 1999년5월 한국사학회
10. 中國中醫研究院, 廣州中醫學院 主編; 中醫大辭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11. 白岳山人 編; 奇譚秘話 李朝五百年野史
12. 한국사특강편찬위원회편; 韓國史特講, 서울대출판부, 1992.
13. 金相孝; 東醫精神神經科學, 서울, 杏林出版, 1980.
14. 염대환; 東醫方劑學, 서울, 행림서원, 1975.
15. 韓醫學大辭典 編纂委員會, 韓醫學大辭典(醫史文獻編), 1985.
16. 李尙仁 等, 方劑學, 서울, 癸丑文化史, 1984.
17. 黃道淵; 大方藥合編, 서울, 杏林出版, 1986.
18. 蔡仁植, 傷寒論譯詮, 서울, 高文社, 1972.